

치 사

모든 존재는 존귀하며 그 누구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바탕으로, 사부대중 모두 정진의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존재들은 연결되어 있고 서로 의지하는 고마운 관계라는 수승한 뜻은 오늘날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문명의 혜택, 이로 인해 자만해왔던 인류는 편리와 탐욕에 치우쳐 그만큼 환경문제를 등한시했기에, 도리어 기후변화라는 거대한 파도를 정면으로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은 폭염, 폭우, 폭설 등의 환경재앙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결국 환경문제는 어느 누구가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실천해야하는 인류의 중대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불교는 그동안 많은 개발의 현장에서 수행환경은 물론 개발지역이 자연과의 조화로운 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해왔습니다. 수행의 시간까지도 잠시 내려놓고 밖으로 나와 무분별한 개발을 막아서고 수행환경 보존이 사찰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의 존엄을 위하는 것이라 알리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현실적인 성과들도 있었으나 보다 폭넓은 인식전환과 구체적 실천이 필요하다는 스스로의 성찰이 따르기도 했습니다. 사찰의 환경부터 지구촌의 환경 문제에 이르기까지 모두 함께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소중한 경험으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예전의 ‘불교환경의제21’ 선포는 종단, 사찰, 사부대중 등 불교의 모든 주체가 함께 참여하는 환경 친화적인 행동계획과 실천으로, 불교의 생명·환경가치를 지역사회 및 사부대중에게 확산시키고자하는 우리 종단과 종도의 노력으로 평가받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오랜 노력과 성과를 포괄하여, 지금은 현재를 넘어 미래까지 고민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사찰의 운영과 신도들의 친환경적 생활, 그리고 사찰림의 보전은 물론 전 지구적인 환경문제와 이에 조응하는 실천에 이르기까지, 환경과 관련된 진중한 고민을 불교적 사상과 가치를 담아 현실적인 대안으로 다시 내어놓게 되었습니다.

오랜 노력과 결실을 고스란히 담은 교재 발간이기에, 환경 활동가와 교육기관에서 정진하는 스님들, 그리고 불교대학에 다니시는 신도 여러분께도 좋은 지침서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더불어 일선 사찰에서 친환경적 여건을 이루어가기 위해 진력하시는 주지스님과 불자님들께 친절한 안내서로 다가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소중한 발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 환경위원회 위원장 수암스님과 환경위원 및 연구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맑고 깨끗한 불국토를 원하거든, 마땅히 그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가르침처럼 불자 모두 불국토를 지키는 청정보살로 꾸준히 정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